***Session 2 The Father’s House: Having an Eternal Mindset (Jn. 14:2-3)* 제 2강 아버지의 집에 대한 영원의 관점 갖기 (요 14:2-3)**

1. Review: Jesus’ command not to allow trouble to dominate our heart  
   복습: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명령
   1. Jesus commanded the disciples not to let trouble dominate their hearts (Jn. 14:1). There are human dynamics involved as indicated by His command to “let not…” He responds by giving us peace.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의 마음이 근심에 눌리지 않게 하라고 명하셨다(요 14:1). 이 명령은 “…하지 말라”는 그분의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중요한 인간의 역동성이 관련되어 있다. 그분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것으로 응답하신다.

1Let not your heart be troubled; you believe in God, believe also in Me…27Peace I leave with you, My peace I give to you…Let not your heart be troubled, neither let it be afraid. (Jn. 14:1, 27)   
1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27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 14:1, 27)  
  
John 13-17 tells how to engage our troubled hearts to overcome anxiety, fear, shame, and betrayal. Jesus gives us line-upon-line insight into God’s heart and promises that are an anchor for our hearts. The truths in John 13-17 equip us to respond to the end-time troubles highlighted in Matthew 24.   
요한복음 13-17장은 불안, 두려움, 수치심, 배신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의 근심하는 마음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알려준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과 약속이 우리 마음의 닻이 되게 하는 직설적이고 자세한 통찰력을 주셨다. 요한복음 13-17장에 있는 진리들은 마태복음 24장에 강조된 마지막 때 환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준다.

* 1. ***I highlight 7 reasons why they were troubled***: moments before Jesus exhorted them not to allow their hearts to be troubled on Thursday evening at the last supper (14:1), He spoke of *leaving them by death* (13:36), *Judas’ betrayal* (13:11), and *Peter denying Him* (13:38). On Tuesday, two days earlier, Jesus exhorted them ***not to be troubled*** (Mt. 24:6) in context to the intense pressures that   
     He prophesied would come in Matthew 24 (and its parallel passages in Mark 13 and Luke 21). These pressures included *crisis in the culture* (wars, racial conflict, pestilences, betrayal, etc.), *persecution* (some would be killed, beaten, or imprisoned; Mt. 24:9; Lk. 21:12, *national crisis*(the destruction of Jerusalem and its temple; Lk. 21:20-24) and the *delay of God’s promises.***제자들이 근심했던 일곱 가지 이유**: 예수님은 목요일 저녁 마지막 만찬에서 그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권고하기 직전(14:1), 자신이 **죽으심으로 그들을 떠날 것이고**(13:36), **유다가 배반할 것이며**(13:11), 또한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에 대해(13:38) 말씀하셨다. 이틀 전 화요일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24 장(마가복음 13 장, 누가복음 21장과 병행 구절)에 나타난 장차 올 극심한 고난에 대해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권고하셨다(마 24:6). 이러한 어려움에는 **사회의 위기**(전쟁, 인종 갈등, 전염병, 배신 등), **핍박**(일부는 죽임을 당하거나 구타를 당하거나 투옥됨; 마 24:9; 눅 21:12), **국가 위기(**예루살렘과 성전 파괴; 눅 21:20-24) 그리고 **하나님 약속이 지연되는 일** 등이 포함된다.

6You will hear of wars and rumors of wars. See that you are not troubled…7For nation [ethnos] will rise against nation…there will be famines, pestilences, and earthquakes. (Mt. 24:6-7)   
6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7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마 24:6-7)

1. in session one, I highlighted 8 truths that Jesus told them to believe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으라고 말씀하신 여덟 가지 진리
   1. The command in John 14:1 is to believe in the divine narrative associated with Jesus’ heart, plans, promises, and leadership. We do this by trusting in God’s heart, plans, and promises; thus, by agreeing with His promises, celebrating His leadership, and engaging with His heart.   
      요한복음 14장 1절의 명령은 예수님의 마음, 계획, 약속, 리더십과 관련된 하나님의 내러티브를 믿으라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과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분의 약속에 동의하고, 그분의 리더십을 기뻐하며, 그분의 마음과 연결되어 동참하는 것이 그분을 믿는 것이다.

1“Let not your heart be troubled; you believe in God [a fact], believe also in Me [a command].”   
2In My Father’s house are many mansions…I go to prepare a place for you. (Jn. 14:1-2)  
1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2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요 14:1-2)

* 1. John 14:1 is not a gospel appeal that they become born again. The disciples were already saved. Many in Israel, including the Pharisees, believed in the God of Moses without having seen His form (Jn. 5:37). They had *faith in an invisible God.* Now Jesus called them to also believe in Him *in this way—*after He died andwas no longer visible. Up to now, the disciples believed in Him by seeing what He did, but soon *He would also be invisible* to them; but He is God just as His Father is.   
     요한복음 14장1절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말이 아니다. 제자들은 이미 구원 받았다. 바리새인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많은 이들이 모세의 하나님을 형상을 보지 않고 믿었다(요 5:37).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와 같이 믿으라고 하시는 것이다. 즉 예수님이 죽으신 후 더 이상 볼 수 없을 때에도 믿으라고 하신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그분을 믿었지만, **그분도 이제 곧 제자들에게 보이지 않게 되실 것이다.** 아버지가 하나님이신 것처럼 그분도 하나님이시다.
  2. John 14:1 is essential to obey in a consistent way because when our hearts are weighed down with anxiety, fear, and shame, we are much more vulnerable to darkness. His peace guards our hearts. What do we do when our heart is troubled? We realign our mind to agree with what God said.   
     우리의 마음이 근심, 두려움, 수치심으로 짓눌려 있을 때 어둠에 훨씬 더 취약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절을 일관되게 순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분의 평화는 우리 마음을 지켜준다. 우리는 마음이 근심스러울 때 어떻게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도록 생각을 재정렬해야 한다.

6Be anxious for nothing, but in everything by prayer…with thanksgiving, let your requests be made known to God; 7and the peace of God…will guard your hearts and minds… (Phil. 4:6-7)   
6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7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 4:6-7)

2…be transformed [emotionally]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Rom. 12:2)   
2… 오직 마음을 [감정적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 (롬12:2)

1. The Father’s House—our ultimate destiny (Jn. 14:2-3)  
   아버지의 집—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 (요 14:2-3)
   1. Jesus promised to return for us and to be with us forever in the Father’s house (14:2-3). I encourage believers to say, *“Jesus, thank you for glorious reality of the Father’s house and for preparing a way for me to live in it forever and for coming again for me! Show me more.”*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다시 오셔서 아버지 집에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14:2-3). 나는 믿는 자들이 이렇게 기도하기를 격려한다. “**예수님, 아버지 집의 영광스러운 현실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 집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예비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다시 오실 것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이것에 대해 더 보여주세요**.”

2In My Father’s house are many mansions…I go to prepare a place for you…3I will come again and receive you to Myself; that where I am, there you may be also. (Jn. 14:2-3)  
2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3…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 14:2-3)

* 1. Jesus began elaborating on what it means to overcome a troubled heart by emphasizing that He would return to take to us the Father’s house (New Jerusalem) as a foundational truth on which to build our lives (14:3, 28). This promise of preparing a place for them to live in the Father’s house gave them a whole new perspective for their life, especially in overcoming despair.   
     예수님은 마음의 근심을 이기는 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주셨다. 우리 삶을 세우는 기본적인 진리 곧, 우리를 아버지 집(새 예루살렘)에 데려 가기 위해 다시 오신다는 진리를 강조하셨다(14:3, 28). 아버지 집에 거할 처소를 마련하신다는 이 약속은 그들의 삶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주는데 특히 절망을 이기도록 해주었다.
  2. The Father’s house speaks of the New Jerusalem (heaven). The New Jerusalem will descend to the earth (Rev. 3:12), ***both*** at the beginning (Rev. 21:10) and at the end (Rev. 21:2) of the Millennium. When this happens, heaven will be on the earth. Resurrected saints will live in the New Jerusalem.   
     아버지의 집은 새 예루살렘(천국)을 말한다. 새 예루살렘은 천년왕국의 시작(계 21:10)과 끝(계 21:2), **두 번**에 걸쳐 땅으로 내려올 것이다(계 3:12). 이런 일이 일어날 때 하늘은 땅 위에 있을 것이다. 부활한 성도들은 새 예루살렘에 거하게 될 것이다.

12“…the New Jerusalem, which comes down out of heaven from My God.” (Rev. 3:12)  
12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계 3:12)

* 1. The Millennium is a 1,000-year period in which Jesus will rule all nations in righteousness and glory. At that time the kingdom will be openly manifested worldwide, affecting every sphere of life (political, social, agricultural, economic, educational, media, arts, technology, etc.; Rev. 20:1-6; cf. Isa. 2:1-4; 11:1-16; 51:1-8; 65:17-25; Mt. 17:11; 19:28). This begins when Jesus returns.   
     천년왕국은 예수님이 의와 영광으로 모든 민족을 다스리실 천년의 기간이다. 그 때 하나님 왕국이 전 세계에 공개적으로 나타나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정치, 사회, 농업, 경제, 교육, 미디어, 예술, 기술 등; 계 20:1-6; 참조 사 2: 1-4, 11:1-16, 51:1-8, 65:17-25, 마 17:11, 19:28). 이 일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시작된다.

4I saw thrones, and they [saints] sat on them…they reigned with Christ for a thousand years…  
6They shall be priests of God…and shall reign with Him a thousand years. (Rev. 20:4-6)   
4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성도들] 있어 … 천 년 동안 왕 노릇 하니…6 …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 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 하리라 (계20:4-6)

* 1. Understanding the biblical perspective of heaven is important because it affects how we see our future, which affects how we live today. If we do not think *rightly* of heaven, then we end up not thinking of heaven at all. Heaven will come to earth at the time of Jesus’ return.   
     천국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우리가 미래를 보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오늘을 사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천국에 대해 **올바르게**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천국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게 된다. 천국은 예수님 재림 때 이 땅에 임할 것이다.
  2. Jesus will join the heavenly and earthly realms when He returns (Eph. 1:10). The centerpiece of God’s eternal purpose is for Jesus to come back to establish His kingdom over all the earth and to ***join*** the heavenly and earthly realms together. The ***earth*** speaks of the physical realm, where human process and physical sensation reach their fullest expression. ***Heaven*** speaks of the spiritual realm, where God’s power and presence are openly manifest. When He returns, the *natural human processes* will not be suspended, but will be enhanced by the *supernatural dimension* of the Spirit.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 하늘과 땅의 영역이 통일되게 하실 것이다(엡 1:10).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의 중심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온 땅에 그분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늘과 땅을 하나로 **합치는 것**이다. **땅**은 인간의 과정과 육체적 감각이 가장 잘 표현되는 물리적 영역을 말한다. **하늘**은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가 드러나는 영적인 영역을 말한다.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인간의 자연적인 과정**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초자연적인 차원**에 의해 향상될 것이다.

9…having made known to us the mystery [hidden plan] of His will…10that He might gather together in one all things in Christ, both which are in heaven and which are on earth—in Him. (Eph. 1:9-10)   
9그 뜻의 비밀 [감추어진 계획] 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10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엡1:9-10)

* 1. The Father dwelling with His people on earth is the ultimate reality accomplished through the cross.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궁극적인 현실이다.

3Behold, the tabernacle of God is with men, and He will dwell with them. (Rev. 21:3)   
3…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 (계21:3)

1. Jesus prepared the way for many to live in the Father’s house (Jn. 14:2)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아버지의 집에 살 길을 예비하셨다 (요 14:2)
   1. Jesus assured them that His Father’s house (the New Jerusalem) has many dwelling-places. Supernatural provision has been made for multitudes who will be in God’s family forever (Rev. 7:9)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새 예루살렘)에 거할 곳이 많다고 확언하셨다. 영원히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많은 이들을 위해 초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이다(계 7:9).

2In My Father’s house are many mansions…I go to prepare a place for you… (Jn. 14:2)  
2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요 14:2-3)

* 1. ***My Father’s house***: This is the grandest name for heaven because it highlights God’s fatherhood. Heaven is called *a country* because of its vastness (Lk. 19:12; Heb. 11:16), *a city* because of its many diverse social dynamics (Heb. 11:10), *a kingdom* because of its authority structure and regal order (2 Pet. 1:11), *a paradise* because of its beauty (Lk 23:43; Rev 2:7). The best name for heaven is “My Father’s house,” speaking of its intimacy enjoyed in close, loyal, committed relationship.  
     **내 아버지의 집**: 이것은 천국의 이름 중 가장 장엄한 이름이다. 하나님의 아버지되심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천국은 그것의 광대함 때문에 **나라**라고 불리고(눅 19:12; 히브리서 11:16), 다양한 사회적 역동성 때문에 **도시**라고 불리며(히 11:10), 권위 구조와 왕정 질서 때문에 **왕국**이라고 불리며(벧후 1:11), 그뿐 아니라 그것의 아름다움 때문에 **낙원**(눅 23:43; 계 2:7)이라고도 불린다. 천국의 가장 좋은 이름은 "내 아버지의 집"이다. 이는 가깝고도 충성되며 헌신된 관계 가운데 누리는 친밀함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2. ***Home***: God relates to His people as a Father who heals them from an orphan spirit—feeling lonely, abandoned, overlooked, and unprovided for. Home is where all are loved, known, and celebrated. Home is where we rest from strife and enjoy peace with our loved ones. Believers are now in a hostile world with enemies all around. Home depicts as place of tender affection, delight, security, and plenty—all of these will be present in the greatest measure imaginable.   
     **집**: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과 관계를 맺으실 때 그분은 외롭고 버림받고 무시당하고 공급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하는 고아의 영으로부터 그들을 치유하시는 아버지로 찾아오신다. 집은 모두가 사랑받고 알고 있으며 축하 받는 곳이다. 집이란 우리가 분쟁에서부터 쉼을 누리고 사랑하는 이들과 평화를 누리는 곳이다. 믿는 자들은 이제 도처에 적이 있는 적대적인 세상 가운데 있다. 집은 부드러운 애정, 기쁨, 안전, 풍요의 장소이며,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규모로 존재할 것이다.
  3. ***Many mansions***: Some translate the word for *“mansions”* as *“dwelling places"* (NAS). The Latin Vulgate translated the noun ***mansiones*** that the KJV transliterated as “mansions.” In the Father’s *one* house are *many* permanent places—this is in contrast to the “tents” of our present pilgrimage.  
     **거처할 곳이 많다**: 일부는 "맨션"에 대한 단어를 "거처"(NAS)로 번역한다. 라틴어 성경 불가타역에서 집(mansiones)이라는 명사를 킹제임스 역은 "저택"으로 번역했다. 아버지의 한 **집**에는 영원한 장소들이 **많이 있다**. 이것은 순례자인 현재 우리 삶의 “장막”과 대조된다.
  4. The Father’s house has many places for His large family (Rev. 7:9). An engineer calculated the New Jerusalem as 2,250,000 square miles, he compared it to London (140 sq. miles), concluding that at the ratio of population in London, the New Jerusalem could hold 100 billion people.   
     아버지의 집에는 그분의 대가족을 위한 장소들이 많이 있다(계 7:9). 한 엔지니어는 새 예루살렘을 2,250,000평방마일로 계산하고 그것을 런던(140평방마일)과 비교하여 런던 인구 비율로 새 예루살렘에 1,000억 명이 거주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9…I looked, and behold, a great multitude which no one could number, of all nations, tribes, peoples, and tongues, standing before the throne and before the Lamb… (Rev. 7:9)   
9…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계7:9)

* 1. ***I go to prepare a place for you***: Jesus went to the cross to prepare a place for us. The “place’” existed before Jesus returned to heaven. He did not arrive and begin to construct buildings. That “place” was not yet prepared until He died to atone for their sin. He had to suffer God’s wrath in our place to remove every obstacle to our acceptance into His Father’s family. We must not let our guilt or unworthiness trouble our heart. By His death, He freely qualified all believers to join Him there.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십자가로 가셨다. 그 “장소”는 예수님이 하늘로 돌아가시기 전에도 존재했다. 예수님이 도착하셔서 건물을 짓기 시작한 것이 아니다. 그 “장소”는 그분이 그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죽으실 때까지 아직은 준비되지 않았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버지의 가족이 되는데 방해되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셔야만 했다. 우리는 죄책감이나 무가치함으로 인해 마음에 근심해서는 안된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모든 믿는 자들이 그곳에서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자격을 값없이 주셨다.

1. Jesus will come again to bring us to the Father’s house (Jn. 14:3)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우리를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실 것이다 (요 14:3)
   1. Jesus will come again. In 14:3, He was primarily referring to His second coming (Acts 1:11), pointing back tothe last message that He gave them on Tuesday from Matthew 24:29-31.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요한복음14장 3절에서 예수님은 주로 자신의 재림(행 1:11)에 대해 말씀하셨고, 화요일에 그들에게 주신 마태복음 24장 29-31절의 마지막 메시지를 다시 언급하셨다.

3I will come again and receive you to Myself; that where I am, there you may be also. (Jn. 14:3)  
3…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14:3)

29Immediately after the tribulation…30The Son of Man will appear in heaven, and then all the tribes of the earth…will see the Son of Man coming…with power and great glory. 31And He will send His angels… and they will gather together His elect…from one end of heaven to the other. (Mt. 24:29-31)   
29그 날 환난 후에… 30그 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 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인자가 …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31그가 …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마 24:29-31)

* 1. Sometimes in referring to “coming to them,” Jesus meant that He would come to them immediately after His resurrection (16:16-17), before His ascension. Other times He meant He would come to them through the Spirit poured out at Pentecost (14:26; 16:14) to dwell in them (14:18, 23).   
     예수님이 “저희에게로 오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분이 부활하신 직후(16:16-17),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오신다고 하신 것이었다. 다른 경우에는 오순절에 부어진 성령(14:26; 16:14)을 통해 그들 안에 거하기 위해(14:18, 23) 그들에게 오신다는 말씀이었다.
  2. Many see a combination of these, but His second coming is the primary meaning here. A view widely held by scholars today sees Jesus’ coming in 14:3 as a reference to His second coming.  
     많은 이들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것으로 보지만, 여기서 주된 의미는 예수님의 재림이다. 오늘날 학자들이 널리 받아들이고 있는 견해는 14장 3절의 예수님 강림이 그분의 재림을 말하는 것으로 본다.
  3. ***3I will receive you to Myself***: The best part of heaven is to be with Jesus and to enjoy His presence. He will come back to personally bring us the Father’s house—this highlights how dear we are to Him. Jesus is deeply desirous for us to be Him forever (Jn. 17:24)   
     **내가…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천국의 가장 좋은 부분은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그분의 임재를 누리는 것이다. 그분은 친히 우리를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가시기 위해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그분께 얼마나 소중한지 보여준다. 예수님은 우리가 영원히 그분과 함께 있기를 깊히 갈망하신다(요 17:24).

24Father, I desire that they…may be with Me where I am, that they may behold My glory…   
(Jn. 17:24)   
24아버지여 …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요 17:24)

* 1. What appears to be a tragic event in history in Jesus going to the cross and even in the difficulty of the Great Tribulation—those times of great pain actually lead to the greatest victory for humanity. It’s easy to be overwhelmed with our pains and problems, and thus lose sight of glorious joys that await us in eternity. Meditate much on Revelation 21-22   
     역사상 비극적 사건으로 보이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대환난의 고난 같은 큰 고통의 시간은 사실상 인류를 가장 큰 승리로 이끄는 것이다. 우리는 고통과 문제들에 압도되어 영원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영광스러운 기쁨을 바라보는 것을 놓치기 쉽다. 요한계시록 21-22장을 많이 묵상하라.

1. The New Jerusalem seen in relational and functional terms (Rev. 21-22)  
   관계적 측면과 기능적 측면에서 본 새 예루살렘 (계 21-22장)
   1. The New Jerusalem set forth in *relational* terms—the saints enjoying nearness to God (Rev. 21:1-8) —and in *functional* terms as the holy of holies (Rev. 21:9-27) and garden of Eden (Rev. 22:1-5).  
      새 예루살렘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함을 누리는 **관계적 측면**(계 21:1-8)이 있고, 지성소(계 21:9-27)와 에덴동산( 계 22:1-5)과 같은 **기능적 측면**이 있다.
   2. The glory of salvation is the Father and Jesus living with the redeemed on earth (Rev. 21:3)—in a face-to-face relationship (22:4). The New Jerusalem will come down to earth (Rev. 3:12; 21:2, 10).  
      구원의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이 땅에서 구속 받은 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으로(계 21:3) 얼굴과 얼굴로 직접 만나는 관계다(22:4). 새 예루살렘은 땅으로 내려올 것이다 (계 3:12; 21:2, 10).

2I, John, saw the holy city, New Jerusalem, coming down out of heaven…prepared as a bride adorned for her husband. 3I heard a loud voice…saying, “Behold, the tabernacle of God is with men, and He will dwell with them, and they shall be His people…4God will wipe away every tear …there shall be no more death, nor sorrow, nor crying…and no more pain…” (Rev. 21:2-4)   
2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3내가 들으니 …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4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계21:2-4)

* 1. The high point of all history is the Father’s throne dwelling on earth with His people. God will tabernacle or live with humans on earth, allowing them to enjoy face-to-face fellowship (22:4).  
     모든 역사의 정점은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가 그분의 백성과 함께 이 땅 위에 거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장막을 치시고 사람들과 함께 사시면서 얼굴과 얼굴로 만나는 교제를 누리도록 하실 것이다(22:4).
  2. The New Jerusalem described in *functional terms—*as the ultimate holy of holies (21:9-27) and the ultimate garden of Eden (22:1-5)—the two places God dwelt with people in the Old Testament.  
     새 예루살렘이 **기능적 측면**으로 묘사된 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거하셨던 두 곳, 즉 궁극적인 지성소(21:9-27)와 궁극적인 에덴 동산(22:1-5)이다.

9… [An angel] talked with me, saying, “Come, I will show you the bride, the Lamb’s wife”…  
10And he showed me…the holy Jerusalem, descending out of heaven from God… (Rev. 21:9-10)  
 9… [천사]가 나아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10…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계21:9-10)

* + 1. ***The Lamb’s wife***: The New Jerusalem is called the Bride, the Lamb’s wife, speaking of a city in deep relationship with the redeemed who are also called “the Lamb’s wife” (19:7).   
       **어린 양의 아내**: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아내 곧 신부라고 하는데, “어린 양의 아내”(19:7)라고 불리는 구속 받은 자들과 깊은 관계 가운데 있는 도시를 말한다.
    2. The very components of the city—its air, food, water, color, smells, fragrances, music, etc.—will inspire love in the Bride of Christ as they partake of them. God prepared the environment (21:2) there to inspire love for Jesus parallel to the Harlot who inspired fornication (17:1).   
       도시의 공기, 음식, 물, 색깔, 냄새, 향기, 음악 등과 같은 바로 그 도시의 구성요소들이 그리스도의 신부와 함께 할 때 그들 가운데 사랑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음녀가 음행을 하게 하는 것처럼(17:1) 그곳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불러일으키도록 하나님은 그곳 환경을 준비하실 것이다(21:2).
  1. ***A city having the glory of God*** (21:11): The Father is extravagant in adorning this city (21:2, 11).   
     It is filled with glory and light compared to the brightness of an ancient jasper (21:11, 23; 22:5). The Lord’s “wedding gift” to the Bride of Christ includes the New Jerusalem—“a diamond city.”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도성**(21:11): 하나님 아버지는 이 성을 화려하게 장식하신다(21:2, 11). 그것은 고대 벽옥의 광채에 비견되는 영광과 빛으로 가득 차 있다 (21:11, 23, 22:5). 그리스도의 신부에게 주시는 주님의 “결혼 선물”에는 “다이아몬드 도시”인 새 예루살렘이 포함된다.

10…The holy Jerusalem, descending out of heaven from God, 11having the glory of God.   
Her light was like a most precious stone, like a jasper stone, clear as crystal. (Rev. 21:10-11)  
10 …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11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이 맑더라 (계21:10-11)

* 1. ***The 12 gates*** (21:21): The 12 gates were each made of pearl. The 12 gates would be about 500 miles apart from each other (if evenly separated over 1,380 miles on each side)   
     **열두 문** (21:21): 열두 개의 문이 각각 진주로 되어 있다. 열두 문은 (각 측면에서 1,380마일 이상 균등하게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보면) 각기 서로 약 500마일 떨어져 있다.
  2. ***The walls*** (21:12b, 14-18): The great and high walls are 1,380 miles in length, height, and width (21:16). The city is described as a cube (21:16) like the holy of holies in Solomon’s temple where the inner sanctuary was 20 cubits long, wide, and high (1 Kgs. 6:19-20). The walls are 216 feet or 72 yards thick (21:15-17). A furlong (NIV *stadia*) is a Greek measurement that is about 600 feet.   
     **성벽** (21:12b, 14-18): 크고 높은 성벽은 길이와 높이와 너비가 1,380마일이다(21:16). 그 성은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와 같이 정육면체로 묘사된다(21:16). 내성소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20큐빗이었다(왕상 6:19-20). 벽의 두께는 216피트 또는 72야드다(21:15-17). 한 펄롱(스타디온)은 헬라식 측정으로 약 600피트이다.

12She had a great and high wall…16The city is laid out as a square…and he measured the city…twelve thousand furlongs [1,380 miles]. Its length, breadth, and height are equal.   
17Then he measured its wall: one hundred and forty-four cubits [72 yards thick]…  
18The…wall was made of jasper; and the city was pure gold, like clear glass. (Rev. 21:12-18)  
12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6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 그 성을 측량하니 만 이천 스다디온이요 [1,380 마일]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17그 성곽을 측량하매 백사십사 규빗 [두께가 72 야드] 이니 … 18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계21:12-18)

* 1. The street is made of transparent gold (21:21); the walls have foundations adorned with precious stones. John described the beautiful light source of the city as the glory of the Lamb (21:23).   
     거리는 투명한 금으로 만들어졌다(21:21). 벽에는 보석으로 장식된 기초가 있다. 요한은 어린 양의 영광이 그 성의 아름다운 빛의 원천이라고 묘사했다(21:23).

23The city had no need of the sun…for the glory of God illuminated it. The Lamb is its light. (Rev. 21:23)  
23그 성은 해…비침이 쓸 데 없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계21:23)

* 1. The New Jerusalem is described in *functional terms—*as the ultimate garden of Eden (Rev. 22:1-5).   
     He described its life with face-to-face communion with God sitting on His throne (Rev. 22:3-4).   
     The river of life and the tree of life in the New Jerusalem clearly point to Eden (Rev. 22:1-2).   
     새 예루살렘은 **기능적 측면**에서 궁극적인 에덴 동산으로 묘사된다(계 22:1-5).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교제하는 삶이 묘사되었다(계 22:3-4). 새 예루살렘에 있는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는 분명히 에덴을 가리키는 것이다(계 22:1-2).

1And he showed me a pure river of water of life, clear as crystal, proceeding from the throne of God and of the Lamb. 2In the middle of its street… was the tree of life, which bore twelve fruits, each tree yielding its fruit every month. The leaves of the tree were for the healing of the nations. (Rev. 22:1-2)   
1또 그가 수정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2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계22:1-2)

* 1. It is a city with the privilege of hosting the throne of God and seeing the face of God (22:3-5). The saints shall serve God in a face-to-face relationship (22:3-4). God’s light will impart power, wisdom, and holiness to His family.   
     이 도성은 하나님의 보좌를 모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특권이 있는 곳이다(22:3-5). 성도들은 하나님을 직접 뵈며 섬길 것이다(22:3-4). 하나님의 빛은 그분의 가족에게 권능과 지혜와 거룩함을 전해줄 것이다.

3…the throne of God and of the Lamb shall be in it, and His servants shall serve Him.   
4They shall see His face…5the Lord God gives them light. They shall reign forever. (Rev. 22:3-5)   
3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4…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5…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 하리로다 [다스리라; 뉴킹제임스역](계22:3-5)

* 1. The saints will be actively serving and administrating His government with authority over the earth. The saints ruling on earth is emphasized (5:9; 7:9; 12:5; 15:3; 19:16).   
     성도들은 땅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그분의 정부를 적극적으로 섬기고 관리할 것이다. 성도들이 땅을 다스리는 것이 강조된다 (5:9; 7:9; 12:5; 15:3; 19:16).

1. The Father’s House—cultivating an eternal perspective  
   아버지의 집—영원의 관점을 기르는 것
   1. The first thing Jesus highlights in overcoming a troubled heart is the need for a ***paradigm shift*** from a temporal worldview of Christianity to a New Testament eternal kingdom paradigm (Col. 3:2). Paul urged believers to seek heavenly things which means to live for the age to come.   
      마음의 근심을 극복하는데 예수님이 가장 먼저 강조하신 것은 패러다임의 전환이었다. 기독교의 일시적 세계관에서 신약의 영원한 나라 패러다임으로 바꾸는 것이다(골 3:2). 바울은 믿는 자들에게 하늘의 것을 찾으라고 했는데 이는 장차 올 세대를 위해 사는 것을 의미했다.

1…seek things which are above…2Set your mind on things above, not on things on the earth.   
(Col. 3:1-2)   
1… 위의 것을 찾으라 … 2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골 3:1-2)

* 1. That is to shift our *primary* focus from seeking blessing on our temporal circumstances to focus on the eternal nature of the kingdom—where we see *our actions as having eternal consequences and benefits.* This is one of the most challenging and most neglected truths that Jesus taught.   
     우리의 **주된** 초점을 일시적 상황 가운데 축복을 구하는 것에서 왕국의 영원한 본질에 맞추는 것이다. 즉 우리의 **행동을 영원한 결과와 혜택을 가져오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 중에 가장 도전적이면서 가장 간과된 진리 중 하나다.
  2. Many believers today have a secular, temporal worldview regarding Christianity. The Spirit wants to shift our paradigm to a New Testament kingdom perspective that is anchored in eternity. The Holy Spirit is using the increasing pressures today to expose a lack of NT eternal paradigm—thus to rescue us from a secular, temporal mindset before persecution greatly increases.   
     오늘날 많은 신자들은 기독교에 관해 세속적이고 일시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다. 성령님은 우리의 패러다임을 영원에 고정된 신약의 왕국 관점으로 옮기기 원하신다. 성령님은 오늘날 증가하는 어려움을 사용하셔서 신약의 영원한 패러다임이 부족함을 드러내신다. 그래서 핍박이 크게 증가하기 전에 우리를 세속적이고 일시적인 사고 방식으로부터 건지시려는 것이다.
  3. Most of the “hope messaging” today is focused on receiving God’s blessing on temporal circumstances—especially our health and wealth. Many believers today are focused more on increasing their finances, health, influence, comfort, and blessing on their circumstances than on loving and serving Jesus and people with all their heart and with an eternal mindset.   
     오늘날 대부분 “소망의 메시지”는 일시적 상황, 특히 우리의 건강과 부에 대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오늘날 많은 믿는 자들은 마음을 다하여 영원한 사고방식으로 예수님과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보다 재정, 건강, 영향력, 안락함, 그들의 상황에 임하는 축복이 늘어나는데 더 초점을 맞춘다.
  4. It is important to settle “the issue of death.” The Spirit want to “bind our hearts” to heaven in this life. Our Father and Jesus are there; it is our home; our family and friends, our inheritance, our ministry destiny, rewards, treasures, and citizenship are all there.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령님은 이 땅의 삶에서 “우리 마음을 천국에 묶기”를 원하신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그곳에 계신다. 그곳은 우리의 집이다. 우리의 가족과 친구, 우리의 유산, 우리의 사역의 운명,상급, 보물, 시민권이 모두 그곳에 있다.
  5. Jesus gave more teaching on eternal rewards and living with an eternal perspective than anyone.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영원한 상급에 대해서와 영원의 관점으로 사는 것에 대해 더 많이 가르치셨다.

19Do not lay up for yourselves treasures on earth…20lay up for yourselves treasures in heaven…   
(Mt. 6:19-20)   
19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20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   
(마6:19-20)

20God said to him, “Fool…” 21“So is he who lays up treasure for himself, and is not rich toward God”…33Sell what you have and give alms; provide yourselves money bags which do not grow old, a treasure in the heavens that does not fail…”(Lk. 12:20-21, 33)   
20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 21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 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33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일이 없느니라 (눅12: 20-21, 33)

* 1. The privilege of receiving eternal rewards is related to being faithful and enduring persecution.영원한 상급을 받는 특권은 신실함을 지키며 핍박을 견디는 것과 관련이 있다.

16We do not lose heart. Even though our outward man is perishing, yet the inward man is being renewed day by day. 17For our light affliction, which is but for a moment, is working for us an… eternal weight of glory, 18while we do not look at the things which are seen, but at the things which are not seen…the things which are not seen are eternal. (2 Cor. 4:16-18)   
16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17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18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후 4:16-18)

25[Moses] choosing rather to suffer affliction...26esteeming the reproach of Christ greater riches than the treasures in Egypt; for he looked to the reward. (Heb. 11:25-26)   
25[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 더 좋아하고 [선택하였고; 뉴킹제임스역] 26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히11:25-26)

* 1. We are to focus on and rejoice in our citizenship being in heaven (Phil. 3:20).   
     우리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것에 집중하며 기뻐해야 한다(빌 3:20).

20For our citizenship is in heaven, from which we also eagerly wait for…Jesus Christ, 21who   
will transform our lowly body that it may be conformed to His glorious body… (Phil. 3:20-21)   
20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21그는 …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빌 3:20-21)